2018. 3. 15. (목) 언론보도

東亞日報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A18면 사회

임진각-신탄리역서 자전거 빌려 DMZ 달려요

경기도, 수~일요일 대여소 운영
캠핑-글램핑장서 숙박도 가능

경기도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광장과 연천군 신탄리역에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대여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평화누리광장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주변 2.8km, 대여소에서 반구정까지 왕복 7.2km, 대여소에서 장산전망대까지 왕복 16.1km 코스를 달릴 수 있다.

신탄리역에서는 백마고지역 방향으로 왕복 13.4km, 연천역 방향으로 왕복 36.6km 코스가 마련돼 있다. 특히 신탄리역 인근에는 분단 현실을 느껴볼 수 있는 열쇠전망대를 비롯해 재인폭포, 연천역 급수탑 같은 볼거리가 다양하다.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콘도 같은 캠핑시설이 있어 숙박할 수도 있다.

자전거 대여소는 11월까지, 수~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한다. 대여료는 시간당 3000원, 하루 1만 원이다. 월, 화요일은 쉰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국민일보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012면 사회

"평화 염원하며 DMZ 라이딩하세요"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 주최
연천~철원 잇는 56㎞ 구간
5월 26일~ 경쟁부문도 신설

"봄향기 속 평화를 염원하며 DMZ를 라이딩하세요."

경기도는 강원도와 공동주최하는 '2018 tour de DMZ'(이하 뚜르드 디엠지)가 오는 5월 26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56㎞ 구간에서 펼쳐진다고 14일 밝혔다.

뚜르드 디엠지는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처음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DMZ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올해는 5월 26일 오전 10시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 코스에서 진행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경쟁부문을 신설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인다. 경쟁구간은 강원도 구간 12.3㎞, 경기도 구간 10㎞로 두 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 각 1~5위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 비경쟁 부문은 자전거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철원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고석정 사거리~DMZ 평화문화광장~백마고지역~연천 신탄리역~연천교차로~연천 공설운동장까지 56㎞를 라이딩하게 된다. 5월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tourde-dmz.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2000명의 참가자를 접수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중부일보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014면 사회

강원도 철원~연천 56㎞ 'tour de DMZ' 참가자 모집

5월8일까지 2천여명 접수
5월26일 오전 10시 출발

경기도가 강원도 철원에서 연천까지 56㎞를 달리는 '2018 tour de DMZ(이하 뚜르드 디엠지)'에 참여할 참가자 2천여명을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뚜르드 디엠지는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개최했다.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DMZ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올해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코스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경쟁부문을 신설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인다. 경쟁구간은 강원도 구간 12.3㎞, 경기도 구간 10㎞로 두 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 각 1위~5위까지 시상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철원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고석정 사거리 ~ DMZ 평화문화광장 ~ 백마고지역 ~ 연천 신탄리역 ~ 연천교차로~ 연천 공설운동장으로 도착하는 56㎞를 라이딩하게 된다.

1차 기록계측 구간은 강원도 철원 상사리 삼거리에서 DMZ평화문화광장까지 총 12.3㎞다. 평소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로 이번 대회의 백미로 여겨진다. 2차 기록계측 구간은 경기도 도신로 삼거리에서 연천교차로까지 10㎞ 구간으로 3번 국도를 따라 라이딩하는 코스다.

참가접수는 오는 5월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진행되며, 비경쟁 부문도 있어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초보자도 참가가 가능하다. 또 참가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참가비는 셔틀버스 이용 시 3만 원, 미 이용 시 1만5천원이다.

박신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뚜르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상생발전 하는 협력의 상징"이라면서 "평소에 가기 어려운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수 있는 행사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956-8307)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편집=김중겸기자

SBS

2018-03-15 18:00

[수도권] 가까워진 DMZ...자전거여행 명소로 부상

동영상 뉴스

<앵커>

최근 남북긴장완화 분위기를 타고 파주 임진각 일대와 연천 지역 DMZ 부근에 자전거 관광길이 열렸습니다.

의정부 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줄줄이 이동합니다. DMZ의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 자전거 관광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DMZ 자전거 투어는 지난주 자전거대여소 개장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광장에서 황희 정승 유적지인 반구정까지 7.2km, 또 기정동 마을 등의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장상 전망대까지 16.1km 코스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습니다.

[박상현(64)/임진각 관광객 : 임진각은 실향민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타니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임진각 대여소에는 100여 대의 알록달록 자전거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2인용은 물론 유아·아동용도 비치해 온 가족이 맞춤형 자전거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천 신탄리역 자전거 대여소도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신탄리에서는 철원 백마고지 방향으로 왕복 13.4km, 연천역 방향으로 왕복 36.6km 구간을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탄리역 인근에는 폐터널의 역고드름, 열쇠전망대, 재인 폭포 등 볼거리가 즐비합니다.

[임성기(37)/경기관광공사 : DMZ 일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관광 코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는 오는 11월 말까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경기도는 캠핑장 등의 여가 시설을 추가해 DMZ 인근을 최고의 자전거 여행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쌍교 기자(twinpeak@sbs.co.kr)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